

HRD
3월의 이슈

청년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 제공!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엘리스, 간담회 개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2월 8일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년 연속 인증 획득



「도제준비과정(잡마켓)」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

누적취업률 **59.3%**(2020년 기준)



1월 전체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98.2만 명 감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이지고 있다’
이 말을 믿고 지내보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마크 앨런-

통권 제60호
발행일 2021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cover story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대책마련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NOW

- 04 2021년 고용노동부, 2조 2,076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06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 0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개최
- 08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현장 NOW

- 1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엘리스, 간담회 개최
- 1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 11 한국고용정보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년 연속 인증 획득
- 12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편·실시
- 12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13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 안전 위해 밀집도 낮추고 방역관리 강화
- 1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14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올해 7월부터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
- 15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5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찾아가는 직업훈련’ 참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모집공고
- 16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 17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 개최

고용 BRIEF

- 18 2021년 1월 고용동향

연구 ISSUES

- 20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 20 일학습병행 이슈분석 운영 사업 III
- 21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 21 직무기반 모듈형 자격 설계,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방안 연구

기관 PLAN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21년 고용노동부, 2조 2,076억 원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피해 지원**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1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 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 <본예산> 8,286억 원, 40만 명(청년특례 10만 명) → <추경안> +1,078억 원, +청년특례 5만 명

◇ (디지털·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 명, +674억 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중심 훈련 제공

**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 원 추가 지원(300~500만 원 → 350~550만 원)

◇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 명 확대

*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 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본예산> 434억 원, 0.9만 명 → <현반영> 906억 원, 1.9만 명 → <추경안> +410억 원, +0.9만 명

3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

* 지자체 청년센터 발굴 → 상담·프로그램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추경안> 65억 원, 0.5만 명 (신규)

◇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지자체 공모)

* <추경안> 400억 원(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분야별 40개 시군구*5억 원 지원)(신규)

4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 (가족돌봄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 원) 지원

* <추경안> 520억 원, 12만 명

◇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 명 확대

* (유연근무) 유연·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 원 사업주 지원

<본예산> 236억 원, 1.1만 명 → <현반영> 450억 원, 2.1만 명 → <추경안> +194억 원, +0.9만 명

2021년 고용노동부, 2조 2,076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 → 90%),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 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21.6월)
 - *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본예산> 1.3조 원, 78만 명 → <현반영> 1.5조 원 → <추경안> +2,033억 원
 - * 경영위기 10개업종: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서비스 업종
- ◇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용자 확대 지원
 - * <본예산> 150억 원, 0.4만 명 → <현반영> 461억 원, 1.3만 명 → <추경안> +417억 원, +1.1만 명

2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규모 확대
 - * <본예산> 991억 원, 1.6만 명 → <현반영> 1,191억 원, 2만 명 → <추경안> +500억 원, +1만 명

3. 맞춤형 피해 지원

1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 * <현반영> 3,782억 원, 70만 명 → <추경안> +4,563억 원, +80만 명

2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 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 ◇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 원 추가 지원
 - * <현반영> 400억 원, 8만 명(50만 원) → <추경안> +560억 원, +8만 명(70만 원)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대상 생계지원

- ◇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 원) 6만 명 추가 지원
 - * <본예산> 460억 원, 9만 명 → <추경안> +309억 원, +6만 명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특고·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생계안정자금 3월 초 지급완료 예정 등

2021년 2월 9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9일(화),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4분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1년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전체 일자리 예산의 80%(24조 1천억 원)가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본부와 지방고용관서,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조속한 사업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내용

1 우선,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 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 56.7만 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1.22.~2.1.)한 17만 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 명)의 52%(40만 명)를 1/4분기 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180 → 270일)하여 지원하는 한편,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1/4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5만 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 → 2천만 원) 및 훈련수당(11.6 → 30만 원) 확대를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4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 명)의 32%(18.9만 명)를 1/4분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분기에 청년층 5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1/4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한편, 특히,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를 위해 부처 역량 집중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안도 논의**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3.2.(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3월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1차 추경예산(안)과 청년·여성 고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1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1.1만여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①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②점검 불응 사업장, ③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 조치(과태료 부과 등)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2 '21년 한 해 동안 시행 예정인 모든 감독·점검(산업안전, 근로기준)* 시 사업장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필수 점검하여 집단감염 예방 노력 상시화**

* ('21년 감독 계획) 산업안전 점검·감독 8.3만 개소, 근로기준 감독 2.5만 개소
** 마스크 착용, 환기, 체온측정, 기숙사·사위시설 등 공공공간 방역관리 여부 등

3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전파*하고, 주기적인 안내(향후 4주간 주2회)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해 나갈 계획

* (대상) 외국인 고용사업장(6만개), 근로자(20만 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45개소)·커뮤니티(117개소)

4 불법체류자 고용 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진과 불체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하고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지속 독려

* 관계부처 합동(고용부·법무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체계를 운영,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5개소 설치·PCR 실시 중

이와 함께,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약 86만 명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정책NOW 4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 실시 등**

2021년 3월 3일,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보도자료



추진배경

1 코로나19로 청년일자리 급감·체감실업률 급증

◇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376.3만 명(전년대비 △18.3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년동월 대비 감소 추세 지속*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20.3)△22.9 (6)△17.0 (9)△21.8 (12)△30.1 ('21.1)△31.4

- 청년실업률은 9.0%로 소폭 증가(전년대비 0.1%p ↑), 청년 체감실업률(25.1%, 2.2%p ↑)은 크게 증가

2 고용여건 변화로 청년구직애로 가중

◇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

* 주요 대기업 채용방식: ▲SK: '22년부터 수시채용, ▲LG, KT: '20년부터 수시채용, ▲현대: '19년부터 수시채용, ▲삼성·롯데: 정기공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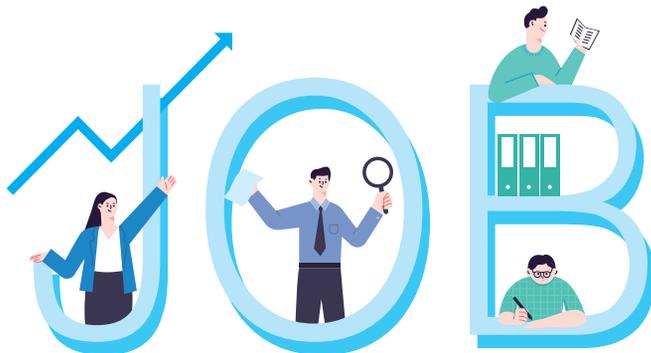
◇ 대면서비스업 침체에 따른 임시·일용직 급감으로 취업준비·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의 소득 창출 기회 감소

* 청년(15~29세) 임시·일용직(만 명): '17년 138, '18년 135, '19년 136, '20년 122, '21.1월 110

☞ 경력단절로 인한 이력효과* 등으로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 확대 우려

* 입직 1년 지연시 같은 연령 근로자에 비해 10년간 임금이 연평균 4~8% 감소 추정(KDI, '20년)

☞ 올해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 제공



목 표

청년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림목 제공



추진과제1

청년이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청년 디지털 일자리(+6만 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2만 명)
- 청년 창업 활성화: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0.4만 명)

추진과제2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하겠습니다.

- 미래 청년인력 양성: 청년 스타트업·그린 트레이닝(+0.3만 명), 디지털 크레딧(+4만 명)
- 청년친화 직업훈련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 실시

추진과제3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일경험·취업』패키지 지원
I 유형 청년특례(+5만 명), 일경험(+1만 명)
- (구직단념청년) ‘청년 도전지원 사업’ 신설(+0.5만 명)
- (고졸) 지역·산업맞춤형 고졸청년 지원사업 확대(+0.8만 명)

추진과제4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투자확대 및 규제 완화
-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확대
-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 등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하여 [당초] 4.4조 원, 79.4만 명+α, [추가] 1.5조 원, 24.6만 명+α
⇒ '21년 총 5.9조 원, 104만 명+α 지원

●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엘리스, ● 간담회 개최

2021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수) 14:00,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랩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엘리스,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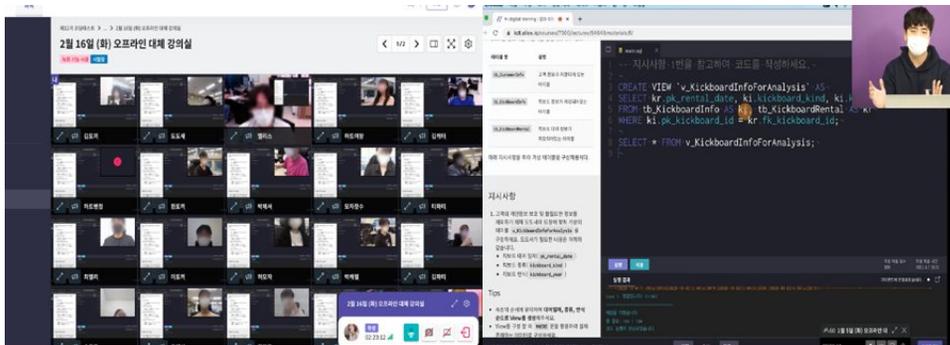


간담회 주요내용

◇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스 교육 플랫폼 화면 예시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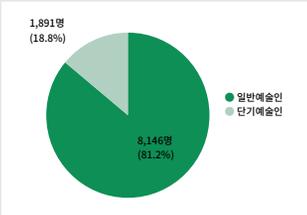
현장NOW 2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1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보도자료



※ 피보험자 중 예술인·단기예술인 비중



2021년 2월 9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NOW 3

● 한국고용정보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 2년 연속 인증 획득

한국고용정보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2년 연속 인증 획득
보도자료



< 신(新) 윤리경영 선언식과 동시 개최된 비전 선포식 >



2021년 2월 9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관리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2월 한국경영인증원(KMR) 심사를 거쳐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전사적 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에도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준법정신과 투명성, 윤리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장NOW 4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편·실시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개편하여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원하는 서비스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개편 내용

- 1 회원가입 절차의 경우 한 번의 인증만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①공통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패스(PASS) 및 ④디지털원패스 중 어느 하나의 인증만으로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총 25종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사업주가 원하는 기업서비스 신청 메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을 전면 개편했다. 사업주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일자리함께하기', '유연근무제' 등 기업서비스에 대한 신청 메뉴를 전면 배치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다.
- 3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도 더욱 편리해졌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누리집과 같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한 번의 인증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장NOW 5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7일(수)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등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총 880편의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4편에 대하여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기공모전 추진경과

- ▶ 추진기간: 2020.11.16.(월)~2020.12.13.(일), 12.28(월) 결과발표
- ▶ 응모현황: 총 880개 작품
- ▶ 심사결과: 34개 작품 선정(대상1, 최우수1, 우수2, 장려10, 입상20명)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모전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 등에 필요한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편·실시
보도자료



*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EI): 개인·기업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도자료



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 * (개요) 국민 스스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외국인 등 제외)
- * (지원내용)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300~5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최대 11.6만 원)

📍 현장NOW 6

●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 안전 위해 밀집도 낮추고 방역관리 강화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3월 2일(화)부터 14일(일)까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

전국 1,277개소 시험장에서 38만 5천여 명이 응시하는 이번 시험은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수험생 밀집도를 낮췄다.

산업기사는 시험 기간을 기존 1일에서 11일(3.2.~3.14.)로 확대하고, 기사·서비스는 1회만 치르던 시험을 2회(3.7. 오전·오후) 나누어 일시에 치르는 등 시험 인원을 분산했다.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미리 조회하여,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감독위원 대상으로 2주간 코로나19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취업 등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 안전 위해
밀집도 낮추고 방역관리 강화
보도자료

📍 현장NOW 7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2021년 3월 3일,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1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 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횡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 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법제·규제심사(~3월 1주) → 행정예고(3월 중) → 고시 개정 및 공포(3월 말)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보도자료

현장NOW 8

●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올해 7월부터 ●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

202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부터 11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시범 운영한 결과, 149개 기업에 30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7월부터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운영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20년까지 누적 163개 특성학교, 20,43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 등의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20년 59.3%)을 보이는 등 특성학교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①도제학생과 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CEO)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사전설명회와 학생의 자기소개 영상을 사전에 공유하고, ②스스로 선택한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多對多) 면접 또는 비대면 화상 면접을 치른 후, ③기업 현장을 견학하여 실제 직무도 사전체험하게 하는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마련하여 서로가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잡마켓)에서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비대면 면접기법 등을 지원하고,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채용과 연계했으며,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과도 연계하여 도제학교 졸업 후 재직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을 컨설팅하는 등 산·학·우수협력사례를 만들었다.(서산공고-해전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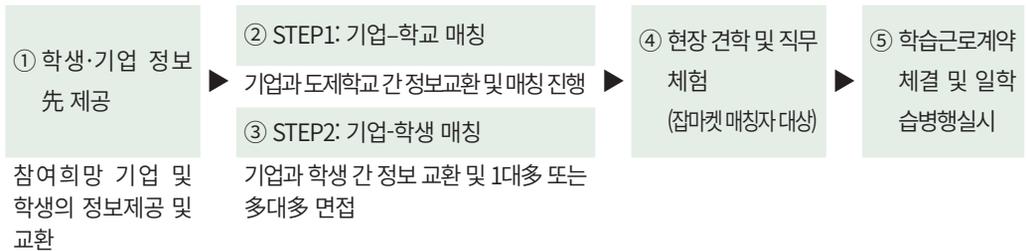
* P-TECH은 도제학교 졸업자 등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실시하고 국가자격 및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

운영모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준비과정

최종 채용

Job Market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올해 7월부터 도제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
보도자료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학교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제도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유형

현장NOW 9

●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외교부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비준한 ①「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②「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 진행('18.12월~'21.1월)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함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현장NOW 10

●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찾아가는 직업훈련' 참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모집공고

202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2월 17일 지역·산업 맞춤형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RSC) 모집을 공고했다.

훈련은 ①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②지역·산업 맞춤형 수시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유형 모두 RSC가 훈련 수요 발굴 및 훈련과정 개설 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권한이 부여된다. 지역·산업 맞춤형 수시훈련은 지역 내 위기산업 및 전략산업 종사자, 취약계층 대상 필요훈련을 ‘지역·산업 맞춤형 수시 훈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훈련과정 심사상 규제 완화(훈련기관 요건 완화, NCS 적용 제외 등) 및 훈련비 지원 확대(NCS 단가 대비 최대 200%까지 지원 등) 등이 제공된다.

훈련에 참여한 RSC는 사업 종료 후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RSC 예산 증액 또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훈련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산업HRD연구센터(舊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훈련에 참여할 RSC를 선정하기 위하여 2월 23일 비대면(온라인회의)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사업계획서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12일 운영 RSC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RSC는 3월 15일부터 훈련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운영 개시한다

'찾아가는 직업훈련'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 중심의 훈련심사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역·산업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주체인 RSC가 훈련과정 개설을 주도함으로써 훈련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공급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으로 추진 사업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2021년 3월 3일,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비전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극복 및 포용적 도약

목표

- ◇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과 고용유지
- ◇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와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기본 방향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회복·유지	①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 서비스 확대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 채용 촉진 지원
	②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신기술·숙련기능분야 등 직업훈련 강화 ▶ 창업 시장 내 여성 참여 제고
	③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예방 지원 ▶ 일·생활 균형 확보 위한 기업 지원 ▶ 전직지원 등 노동시장 이탈위기 극복
미래 유망 일자리로 포용적 도약 지원	④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 여성 다수 일자리의 근로 여건 개선 ▶ 청년여성 등 미래 유망분야 진입·진출 지원 ▶ 성별업종분리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여성고용 정책 기반 강화	⑤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 여성 고용 관련 법 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여성고용서비스 체계 내실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보도자료



● ‘폴리텍 로봇 캠퍼스’ ● 개교(입학)식 개최

2021년 3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3월 2일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을 열고 첫 신입생을 맞이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2년제 학위과정으로 ▲로봇기계, ▲로봇 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에서 각 25명씩 연간 100명을 양성한다.

「로봇 캠퍼스」는 대구 로봇산업 클러스터(대구 북구), 하이파크지구(경북 영천, '23년 입주예정)·첨단부품 소재산업지구(경북 영천) 등 산업단지 및 대구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ABB 연구소* 등과도 인접해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현대로보틱스(국내 1위 로봇기업), ABB·야스카와전기(세계1·2위 로봇기업)

로봇캠퍼스 특화 내용

- 1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재학생과 로봇 기업 전문가를 연결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 설립 단계부터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산업협회에 등록된 68개의 로봇 전문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현장과 교육의 시차 없는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2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평균 실무경력 15년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해 경쟁력을 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산전, 금오공대 연구소, 경북대 등 산·학 전반에서 탄탄한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 3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제어 기반의 제품 생산 전 공정 실습이 가능한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교과개발부터 실습실, 장비 도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4 지난 1월 대학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설로봇(UR)* 공인인증 교육센터’를 개소해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고 공신력을 갖췄다. 캠퍼스 교수 2명은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운용 지도가 가능한 인증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수료한 학생은 ‘협동로봇 운용 기술 자격(국제인증서)’을 취득할 수 있다.

*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협동로봇 분야 대표 기업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0만 명의 산업 일꾼을 배출한 폴리텍이 로봇 캠퍼스로 다시 도약한다.”라며, “로봇 캠퍼스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선도할 직업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 개최 보도자료



< 로봇캠퍼스 전경 >



2021년 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1

주요결과

-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등의 영향으로 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8.2만 명 감소하며, 전월('20.12월, △62.8만 명)보다 감소폭 확대
- ❖ 정부는 90만+α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 강화 등과 함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 민생어려움 경감 및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취업자 및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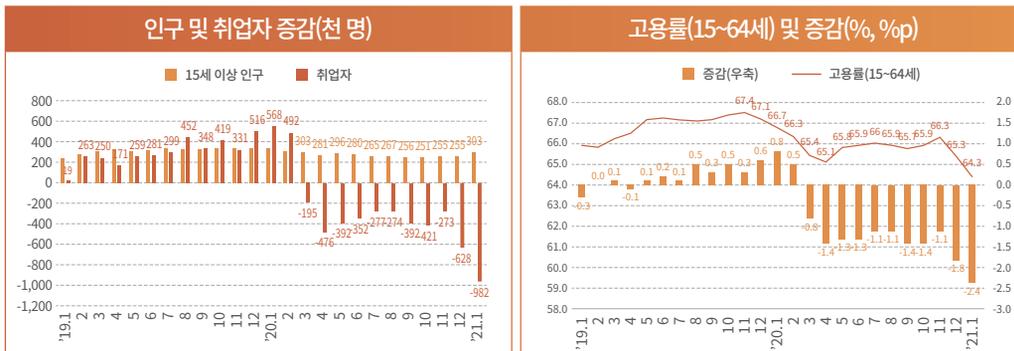
1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8.2만 명 감소

* 취업자수('20.1 → '21.1, 만 명): 2,680.0 → 2,581.8<△98.2만 명>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2.6%p), 15~64세(△2.4%p)에서 모두 하락, 경찰률(△1.7%p)도 하락

* 15세이상 고용률('20.1 → '21.1, %): 60.0 → 57.4<△2.6%p> / 15~64세 고용률('20.1 → '21.1, %): 66.7 → 64.3<△2.4%p>

* 경제활동참가율('20.1 → '21.1, %): 62.6 → 60.9<△1.7%p>



취업자 감소폭과 고용률·경찰률 하락폭은 확대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20.9)△39.2 (10)△42.1 (11)△27.3 (12)△62.8 ('21.1)△98.2

* 고용률 등락(전년비, %p): ('20.9)△1.2 (10)△1.3 (11)△1.0 (12)△1.7 ('21.1)△2.6

* 경찰률 등락(전년비, %p): ('20.9)△1.0 (10)△0.9 (11)△0.8 (12)△1.3 ('21.1)△1.7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감소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 전환

❖ 서비스업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등으로 인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9)△38.2 (10)△38.3 (11)△26.6 (12)△60.4 ('21.1)△89.8

-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9)△22.5 (10)△22.7 (11)△16.1 (12)△31.3 ('21.1)△36.7

- 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9)△20.7 (10)△18.8 (11)△16.6 (12)△19.7 ('21.1)△21.8

-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종료·재개 시차 등 영향으로 관련 일자리 비중 높은 공공행정업 증가세 둔화, 보건복지업 감소 전환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9)10.6 (10)12.3 (11)15.2 (12)9.1 ('21.1)2.0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9)13.5 (10)10.5 (11)11.4 (12)4.4 ('21.1)△7.4

2021년 1월
고용동향



◇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완화

* 수출(% , 전년비) : ('20.7)△7.1 (8)△10.2 (9)7.6 (10)△3.8 (11)4.1 (12)12.6 ('21.1)11.4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9)△6.8 (10)△9.8 (11)△11.3 (12)△11.0 ('21.1)△4.6

◇ 건설업은 폭설, 한파 등 영향으로 5개월만에 감소 전환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9)5.5 (10)3.7 (11)7.7 (12)2.3 ('21.1)△2.0

중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12 → '21.1월) : (상용)0.5 → 3.6 (임시)△35.1 → △56.3 (일용)△17.0 → △23.2 (고용有)△13.8 → △15.8 (고용無)7.5 → 3.2 (무급)△5.0 → △9.6

연령별로는 재정일자리 등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감소 전환되며, 전 연령대에서 감소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12 → '21.1월) : (청년)△30.1 → △31.4 (30대)△24.6 → △27.3 (40대)△18.3 → △21.0 (50대)△14.7 → △17.0 (60세 이상)24.9 → △1.5

실업자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영향으로 증가폭 확대

* 실업자(만 명) : ('20.8)86.4 (9)100.0 (10)102.8 (11)96.7 (12)113.5 ('21.1)157.0
 - 증감(전년비, 만 명) : ('20.8)0.6 (9)11.6 (10)16.4 (11)10.1 (12)19.4 ('21.1)41.7

👤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숙박음식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 ('20.9)△17.2 (10)△17.6 (11)△16.9 (12)△17.2 ('21.1)△13.2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9)△21.8 (10)△25.0 (11)△24.3 (12)△30.1 ('21.1)△31.4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2.9%p)하고, 실업률(+1.8%p), 확장실업률(+5.8%p)은 상승

* 청년 고용률('20.1 → '21.1, %) : 44.0 → 41.1 <△2.9%p>
 * 청년 실업률('20.1 → '21.1, %) : 7.7 → 9.5 <+1.8%p> / 청년 확장실업률('20.1 → '21.1, %) : 21.4 → 27.2 <+5.8%p>

◇ 청년 비경활인구는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

*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 명) : ('20.9)△0.5 (10)4.2 (11)4.3 (12)11.8 ('21.1)13.1
 * 기업규모별 신입 채용확정 비율(% , '20 → '21, 인크루트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 (대기업)71.7 → 56.2 (중견기업)46.8 → 43.4 (중소기업)30.8 → 32.7

👤 평가 및 대응

금번 취업자 감소폭 확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된 것이 주원인

* 거리두기(수도권 2.5 /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연장 적용(~2.14)

◇ 취업자 감소(△98.2만 명) 중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감소(△89.8만 명)가 대부분을 차지

◇ 또한, 수출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축소('20.12월 △11.0만 명 → '21.1월 △4.6만 명)되었으나,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폭설,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요인과, '20.1월 고용 호조(+56.8만 명)에 따른 (-)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정부는 고용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 경감 및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음

- 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1/4분기 중 90만+α개의 직접일 자리를 창출
-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망 강화
- ③ 규제혁신, 한국판 뉴딜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

연구NOW 1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년 2월
남재욱, 서복경, 김영빈

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가 서울시 청년층에게 미친 영향을 취업, 진로설계, 사회적 관계망, 생활,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등의 전반적 측면에서 확인·분석하고 청년층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집단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코로나 세대’를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기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사업 참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연구NOW 2

● 일학습병행 이슈분석
운영 사업 I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년 2월
홍광표, 김대영, 오혁제, 박동진, 김윤아

주요내용

- **연구배경**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제도의 수혜 대상인 학습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제도의 다양화 및 복잡성을 수반함에 따라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들이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한편, 2019년 8월 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질적 내실화 및 지속적 개선 추구를 위해 일학습병행 기본 계획(3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목적**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된 일학습병행제도 개선 TF 논의 사항 및 2019 일학습병행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항 가운데 최근 현황을 다시 검토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아울러 2020년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하여 2021년 일학습병행 정책 기획, 사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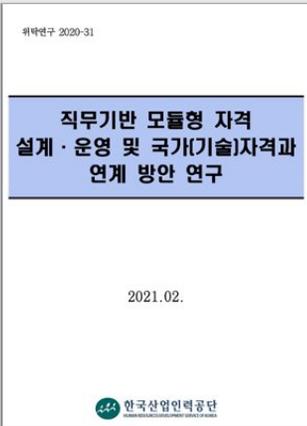
일학습병행 이슈분석
운영 사업 III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직무기반 모듈형 자격 설계,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방안 연구



연구NOW 3

●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12월
정흥준, 이정희, 이상준, 강수돌, 노성철, 이찬우, 조규준

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정규직 중심의 고용관계가 쇠퇴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임. 플랫폼 노동의 비율은 전체 노동인구의 5~10%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고용관계에서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첫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 둘째,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플랫폼 노동 자체에 주목해 왔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이 필요, 셋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플랫폼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기 위함.

연구NOW 4

● 직무기반 모듈형 자격 설계,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3월
(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위탁연구)

주요내용

- 연구목적 직무기반 모듈형 자격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자격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제도 정착을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세부연구 목표는 1)모듈형 자격 관련현황 및 수요 분석, 2)모듈형 자격 관련 국외사례를 벤치마킹, 3)모듈형 자격 운영 모델 및 방안 수립, 4) 모듈형 자격 도입 및 발전방안 수립임.



2.7. 20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

2.17.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2.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준비과정 (잡마켓) 시범운영

3.2.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방역조치 강화

3.3. K-Digital Training 훈련기관 방문

3.16.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3.10.-3.11. '21년 제2차 일학습병행 공동 훈련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3.12. '21년도 제2차 자산맞 심의위원회 개최

3.12. '20년 일학습병행 실감형콘텐츠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3.25.~3.26. 한-아세안 고용노동 정책 공유 워크숍

2.15. 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결과 소개

3.2.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편

3.2. 로봇캠퍼스 개교식

3.2.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전남, 전북, 남대구캠퍼스 캠퍼스 명칭 변경

2.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업무협약 체결

2.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해양환경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2.21. 일학습병행대학 강소기업경영학과
졸업생 발전기금전달식

2.21. 2019년도 학위수여식_축하영상 대체

2.27. 2020년도 입학식_축하영상 대체

2.27. 코로나19 대응 도지사-충남도
대학총장 간담회

3.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학사협의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22.~3.19. '21년도 베스트직업훈련기관
(BHA) 공모 신청 접수

3.12.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성과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 공고

3.16~3.22. 제2차 원격훈련과정 정기심사
신청접수

3.31. '21년 3월 신기술훈련과정 심사
접수 및 과정심사 진행

3월 말 '21년 K-디지털 직업훈련
(Platform·Training·Credit)
결과 발표

2.18. 2021년 사회배려대상 진로교육
관계자 1차 온라인 연수

2.22. 2021년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워크숍

2.24. 2020 대학진로취업컨설팅 마무리
온라인 세미나

2.25. 2021년 사회배려대상 진로교육
관계자 2차 온라인 연수

2.25. ASEAN 직업교육협력
컨설턴트 워크숍

3.4. 2021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비
지원단 온라인 심화 컨설팅

3.18. ASEAN 직업교육협력사업 온라인
컨설팅 베트남 후에산업대학

3.18.~3.19. 산업별 인적역량 보고서
작성 워크숍

예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및
성과평가 온라인 설명회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을 집중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공공 · 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 ✓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확대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 ✓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 새일여성인턴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지원 강화

-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장년 여성(40~50대) 집중 지원
-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내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원 신설
- ✓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 지원서비스 추진
- ✓ K-Digital Credit 확대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강화